

농식품부, 도시락농정 포럼 개최

오리고기에 대한 관심 확대 기회 가져



- ① 강의를 하고 있는 서옥석연구원
- ② 도시락포럼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들
- ③ 포럼에 참석한 이강현전문, 김정주사무관, 최정록과장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7일(수),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오리고기 우수성과 효능’이란 주제로 도시락농정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방역관리과 최정록과장과 김정주사무관을 비롯하여 농식품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서옥석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강한 오리산업’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은 방역관리과 최정록과장은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한 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포럼을 계기로 오리산업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서옥석 박사는 오리의 기원 및 특징과 습성 등 오리 기초 상식부터 최근 오리산업 현황과 과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호감 받는 오리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오리 산업 환경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

정한 SWOT 분석을 발표하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오리산업의 좌표를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서옥석 박사는 오리산업의 현 과제로서 첫째, 조류인플루엔자를 죽을 각오로 막아내는 일 둘째, 사육시설 개선은 산업생존의 조건 셋째, 오리의 웰빙 이미지를 잃지 않을 것 넷째, 소비시장 다변화를 통한 신수요 창출 다섯째, 최소 10%는 국산종자 생산 여섯째, 환경과 소비자 그리고 산업간 공생 공존하는 생산방식을 꼽으며 내 생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포럼에 오리요리 레시피 책자를 배포하여 가정식 간편 요리법 전수 및 오리요리의 다양성을 홍보하였다.